

천마 활용 연구개발 본격 추진 무주군, 남대천 수질보호 추진

무주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선정

무주군의 대표 작물로 꼽히는 천마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연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10억4,000여만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을 들여 '천마복합처방을 활용한 뇌 인지 기능 개선 및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이 사업은 1·2단계 연차별로 나뉘어 추진되며, 무주군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천마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지난 2000년부터 규제가 완화 돼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된 천마를 대상으로 식품 및 의약소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표준화와 기능성소재 개발이 주요골자다.

이들 기관들은 스마트시설 활용 천마 생산뿐만 아니라 천마 추출물을 이용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탐색하고 임상시험과 천마복합처방 제품개발, 시합령가 등 다양한 연구를 기관 과제별로 수행해 뇌 인지기능 개선 개별인정 획득을 위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천마는 동의보감 등 여러 문헌에서 보듯이 고향압을 비롯해 신경성 질환, 스트레스 피로 등의 증상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천마 기능성 연구소재 개발이 성공을 거둘 경우 보다 폭넓은 천마의 활용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천마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소재 생산과 함께 기술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은 "천마 연구를 통해 뇌 인지기능개선 소재로 인정되고 제품화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건강지향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소재 발굴과 함께 천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보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마는 지난 2001년 9월 1일부로 식약청의 식품원료 분류에 식품의 주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식품으로 분류 돼 가공식품으로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고품질 인삼 안정적 생산 나선다

고온피해 종합기술 시범 사업 추진... 생산량·농가소득 증가 등 기대

무주군은 안정성 인삼농가 등 2ha 5개소를 대상으로 인삼 고온피해 종합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여름철 지속되는 강우와 폭염으로 인삼의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인삼작물은 고온에 취약하고, 최근 농토양을 객토해 재배 면적도 증가하면서 여름철 재배 과정에서 토양장애와 습해피해(황증)가 발생에 노출되고 있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삼 차광지(은박지, 청색)시설

을 피복하고 2중 차광망을 덧써어 여름철 고온의 피해와 재배 포장의 직접적인 경우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관수시설을 설치해 수분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어 질 좋은 토양으로 개선되고 습해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무주군의 농·특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함으로써 생산량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점점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고온과 집중호우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고품질의 인삼 생산과, 생산량 증대, 농약 절감 등이 기대된다.



무주군은 안정성 인삼농가 등 2ha 5개소를 대상으로 인삼 고온피해 종합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5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5년간 생육조사와 병해충, 품질분석 등도 추진해 무주지역의 기능성 차광지의 효과와 개선점을 찾아 모든 인삼 농가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전 군민에 1인당 10매 마스크 지원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4차 대유행 예방을 위해 전 군민에게 KF94 마스크를 지원한다.

군은 6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매씩 총 25만 여장의 마스크를 배부한다. 마스크는 읍면 마을 이장을 통해 각 가구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요양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외국인 근로자 등 집단 시설 진단검사 ▲감염취

약시설 방역물품 배부 등 코로나19 대응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은 마스크 착용이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 /진안=우태만 기자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현장점검·대대적 정화활동 펼쳐

무주군이 남대천 수질보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3월 31일부터 그물망을 이용해 하천 하부에 쌓인 퇴적물을 긁어냈으며 무주읍 남대천 1대회 기널교 아래 보를 개방해 유속 차를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진행(2차 4.21.~23. 예정)했다.

또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남대천 주변에 버려져 있던 폐비닐과 담배꽂초 등의 쓰레기들과 잡목 등을 수거했으며 무주군 수난구조대(보트 1대, 잡수인력 4명)가 직접 참여해 수중 쓰레기들을 제거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은 "수질 오염원 차단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오염 배출사업장과 기타 수질 오염원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대천 줄기인 관내 하천 25곳에 대한 수질 검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 하천 수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내 하천 25곳의 수질검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평균 농도는 1.2mg/L, 부유물질은 2.04mg/L로 하천수 수질기준 1등급(중음)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철 수온 상승으로 인한 미생물 활동의 증가와 하천수량 감소 및 비 및 거름 사용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때문에 수질오염과 탁도가 우려되는 상황.

이에 황인홍 군수는 지난달 30일 군청 환경지도, 자원순환 담당 공무원들과 남대천 일대를 둘러보고 수질보호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주문했으며 군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펼쳤다.

황인홍 군수는 "남대천은 지역의 젓줄이자 청정무주의 산실이고, 군민의 식수원"이라며 "이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새기며 남대천 수질 1등급 유지는 물론, 주변 환경을 가꾸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으로 남대천 수질 개선사업(수질 1등급 유지)을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2018년 관내 하천 실태조사 연구조사를 완료하고 매년 하천수 수질검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또 전라북도 군특이양사업으로 2021년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규 사업에 선정돼 등방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시설계용역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다.

군은 동시에 하수처리구역 확대, 가축분뇨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풍 및 구천동 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남대천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친환경 미래축산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

진안군은 5일 염소산업 분야의 집중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전북도와 협력하여 염소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각종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염소의 사육규모 증대와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염소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지생태축산 등 염소가 친환경 미래축산의 부합한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으며, 염소고기는 저지방·

저칼로리·저콜레스테롤에 고단백의 대표적인 영양식품으로써 웰빙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염소고기의 소비형태가 약육에서 육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체중측정을 저울, 자동 보온급수기, 생육 증진용 축사 바닥재, 축사 울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능력 종염소를 이용한 종자계량으로, 우수한 축종을 생산하기 위한 종염소 지원 사업 또한 검토 중에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군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장수군(군수 장영수)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장수군지부(지부장 정희수, 이하 장수군공무원노조)는 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교섭을 실시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조기 타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일 장수군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57개 조항에 대

한 제·개정(안)을 담은 교섭요구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만에 노사 합의했다.

군과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는 서면노사합의를 통해 장수군과 장수군공무원노조는 민원폭력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와 직장내 갑질 등 직원 상호간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진안군은 5일 4월 한 달 동안 '2021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대상은 소 227농가 9,600두, 염소 106농가 4,400두다.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는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한우 소규모 사육농가 및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 한우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접종 후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7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접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농가에서 관찰 읍·면 또는 공수의사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해 향후 채혈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20년 귀속 법인 소득 신고·납부 접수

장수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2020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 삼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